

뉴스홈 | 최신기사

개장 지연 거듭되는 창원SMT타운..."특단 대책 필요"

송고시간 | 2022-02-10 10:44

김선경 기자
기자 페이지

| 노창섭 의원 시의회 5분 발언 "애물단지로 전락"

창원SMT타운 전경
[연합뉴스 자료사진]

(창원=연합뉴스) 김선경 기자 = 정의당 노창섭 경남 창원시 의원은 10일 "시는 개장 지연을 거듭하는 창원SMT타운(창원 문화복합타운) 사업에 대해 시민들에게 공개 사과하고, 협약 해지 등 특단의 대책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노 의원은 이날 열린 제112회 시의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에 나서 "시는 모든 책임을 회피하고 시간만 끌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시가 (안상수 전임 시장 시절인) 2016년 창원SMT타운을 유치한 후 4차례나 개장을 연기한 현재까지 SMT타운은 정상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며 "K-POP 한류문화를 통한 관광산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 창출을 도모하겠다는 사업 취지는 온데간데없고 애물단지로 전락하고 있다"고도 비판했다.



그러면서 "개장이 계속 지연되는 과정에서 시는 지난해 10월 사업 미이행 책임은 사업시행자 '주식회사 창원아티움시티', 운영참여자 'SM엔터테인먼트', 운영법인 '주식회사 창원문화복합타운' 등 운영 주체가 전적으로 져야 한다며 귀책 사유를 통보하고 그해 12월 27일까지 치유계획을 회신받아 종합 검토한다고 했다"고 덧붙였다.

창원SMT타운 전경
[연합뉴스 자료사진]

핫뉴스 →

박진, 광우병 사태 때 美당국자에 "한국에 너
무 많은 민주주의"한국 유튜브버, 촬영 중 실수로 우크라 국경 넘었
다 귀환프로야구 LG-SSG전 오심 내린 심판, 2군 강
등 장계"마지막 순간 마음 바꿨다" 2015년 파리 테러
범이 밝힌 '그날'...

'음주측정 거부-경찰관 폭행' 래퍼 장용준 1심 실...

가짜 여성계정 운영 의혹' 소개팅앱 내부고발...권익...

박찬욱, 칸 초청에 "기쁜 볼스식...오래 기립박수 칠...

반려견도 육식보다는 채식이 더 건강하고 덜 위험해



노 의원은 "시는 사업 정상 추진 의지가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협약 해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있을 수도 있다고 했음에도 최근 치유계획을 검토해 이행 기간 2개월을 또 일방적으로 연장해줬다"며 "그 안으로 운영 주체가 치유계획을 이행해 정상 개관하라는 뜻이라고 한다"고 설명했다.

또 "거듭된 창원 SM타운 개관 지연은 운영 주체 간 갈등이 주된 원인인데, 개장 지연으로 가장 피해를 본 분들은 주상복합 분양자와 입주민들"이라며 "약 1천232가구 주상복합 아파트에 입주한 지 1년 6개월이 지났는데도 공영주차장 비용 문제, 전선 지중화 사업, 학교 통학로 사업 등 시행사와 시가 약속한 사업은 전혀 이행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지난 4년간 무엇이 잘못됐는지 다시 점검하고 시행사에 책임을 물어 협약서대로 계약 해지 등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며 "폭탄 돌리기식으로 미루지 말고 최종 결단을 해서 시정에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달라"고 덧붙였다.

ksk@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22/02/10 10:44 송고

#창원SM타운 #창원시 #SM엔터 #노창섭

당신이 함께 보면 좋은 콘텐츠

당신이 좋아할 만한 콘텐츠

현장 영상 →

▶ 01:18

[영상] 입발 묶인채 두 눈만 열뚝뚝...누가 확대했나

▶ 02:22

[영상] 곡사포 수송헬기 정갑차...美, 꺼렸던 무기들 결국 우크라이나

[영상] 미국 최고위급 키아우 방탄 컨 등 후보군

▶ 01:59

에디터스 픽 Editor's Picks

● 영상

[영상] 윤석열, 안철수 '패상' 질문에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

● 뉴스

尹당선인 安위원장 만찬 회동..."흔들림 없이 손잡고 헌팅"

모임·영업·행사 제한 등 거리두기 완전 해제...마스크는 '유지'

검수완박에 청문장국 '한동훈 블랙홀'까지...여야 끝장대치 예고

1년5개월 만에 전국 평검사회의...검수완박 대응' 논의

기준금리 1.25→1.50% 또 인상...4%대 인플레이션 '뺄 끼기'

댓글 많은 뉴스

- 1

김건희 여사 팬카페, 악성 댓글 '누리꾼들 경찰'에 고발

122
- 2

정호영 자녀, 경북의대 편입전 아버지 있던 경북대병원 자원봉사

58
- 3

'유퀴즈'尹당선인 출연 논란..."프로그램 취지와 안 맞아"(종합)

47
- 4

두문불출 이재명, 이발·염색...조기등판론 속 활동 재개 예열?

37
- 5

문대통령, 손석희와 대담...靑 "임기 5년 소회 밝힐 예정"

31

뭐하고 놀까? #홍→

유튜브 채널



SNS



뉴스홀 최신기사 정치 북한 경제 산업 사회 전국 세계 문화 라이프 연예 스포츠 오피니언 사람들

비주얼뉴스 영상 포토 화보 #D 그래픽

뉴스 상품 프리미엄뉴스 뉴스리더 인터넷맞춤형 보도자료 해외배포 보도자료 국내배포

데미별뉴스 핫뉴스 톱뉴스 주요뉴스 긴급뉴스 단독뉴스 많이본뉴스

출판물 이매진 연합연감 영문연감 한국인물사전 단행본 월간마이다스

뉴스+ 이슈돋보기 팩트체크 재난포털 날씨 주요신문 톱뉴스사설 이시각 헤드라인

광고 KTX 열차 AREX 공항철도 모바일 PC홈페이지 출판물

모바일 뉴스 모바일웹 모바일앱

콘텐츠 판매 보도사진 이미지 그래픽 동영상 인물

외국어 English 中文 日本語 عربي Español Français

관련사이트 연합뉴스TV 인포맥스 한민족센터 K컬처기획단(K-ODYSSEY) 채용 IR 클럽 #홍

계약사/제휴문의

회사소개 윤리헌장 저작권규약 수용자권익위원회 모바일모니터링위원회 콘텐츠지문위원회 고충처리

이용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 독자기사편 가사제보(02-398-3000) 사이트맵

연합뉴스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2길 25 | 등록번호 문화, 나00009 | 등록일자 1980.12.29 | 발행일자 1980.12.29 | Tel. 02-398-3114

(C) [대표이사] 성기홍 [편집인] 조채희
Yonhapnews